

[2023 한국사연구회 학술회의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와 한국사의 미래] 2023년 11월 11일

디지털 환경에서 역사학하기에 관한 질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흐름과 조선시대 연구의 대응(엄기석)」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 류인태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인사말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류인태입니다. 이번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그래서 의미 있는 발표문을 앞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역사학을 전공한, 그래서 조선시대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연구자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중요한 자리에 저를 불러 주신 것은 아마도 제가 디지털 인문학 연구자이고 또 주로 조선시대 자료를 공부하고 있기에,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와 한국사의 미래’에 대해 뭔가 조금이라도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 판단하신 결과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조선시대 자료를 공부하고 있고, 그동안 논문도 몇 편 발표하기는 했지만 역사학 전공자가 아니기도 하고 본격적인 조선시대사 연구자로 자임하는 입장도 아니기에 유관 지식에 관해서는 여전히 일천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때문에 공부에 대한 강박만 늘어나고 있을 뿐 사실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말씀드릴 만한 역량을 과연 제가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언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도, 실제 유관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말씀을 지근거리에서 듣고 싶다는 제 개인의 옹졸한 마음에서 비롯한 것이지, 디지털 환경 및 데이터 처리 기술에 입각한 조선시대사 연구의 새로운 지형에 관해 유의미한 논의를 펼쳐 보일 수 있다는 학문적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관련해서 제 토론이 엄기석 선생님께서 정성껏 작성하신 발표문 내용에 대해 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한편으로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잠깐이나마 디지털 역사학을 고민하고 또 그런 고민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적절한 매개가 되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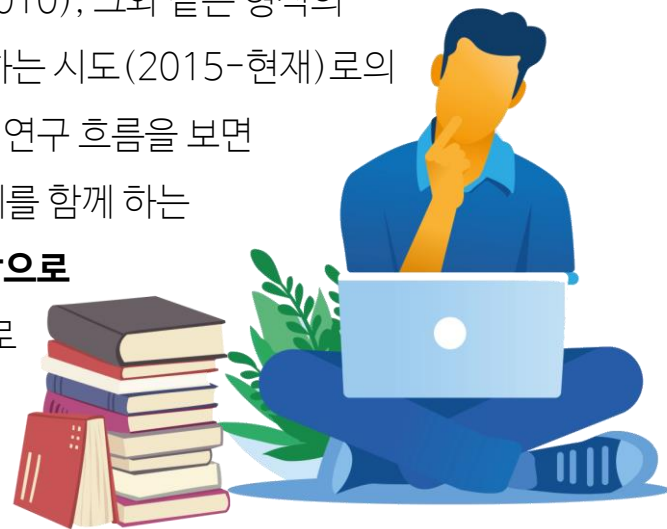
전체적인 감상

먼저 엄기석 선생님의 발표문을 받고, 발표문을 작성하시는 데 무척 힘드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조선시대 연구가 그동안 어떻게 흘러 왔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는 내용은, 유관 분야의 전문 연구자라 하더라도 쉬이 다룰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수집하고 정리해야 할 유관 자료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여러 학적 문제의식들이 복잡다기한 탓입니다. 무엇보다도 역사학 연구의 지형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라는 두 영역에 관한 이해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그러한 내용을 온전히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간 시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표문 상에 정리된 긴요한 학적 정보와 문제의식들을 보면, 엄기석 선생님께서 평소 디지털 역사학 분야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얼마만큼의 이해를 갖추고 계신 지,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발표문을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을 지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신 발표문 덕분에 저도 유관 내용을 다시금 짚어볼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관련해서 저는 디지털 환경 또는 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해 전근대 한문자료에 담긴 지식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섬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는 위치에 있기에, 발표문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디지털 환경 및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달에 따른 역사학 분야의 대응과 그 시사점에 대해 평소에 생각하던 바가 있어서, 유관 내용 몇 가지를 간추려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다할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역사학 연구의 접점에 관하여

선생님께서 발표문 앞부분(4-6페이지)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역사학 즉 ‘디지털 역사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 그 연장선상에서 조선시대 자료를 다루는 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그 결과 그동안 구축된 디지털 역사 자원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떠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지에 관해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날로그 환경의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목적 및 맥락에 관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기술의 측면에서는 ‘가용성(可用性, availability)’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술 영역에서 가용성이란 어떠한 프로세스나 시스템을 장애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나 환경을 가리킵니다. 가용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특정 기술이 유효하지 않았는데 기술 발달에 따라 최근에는 해당 기술이 유효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걸 적용해보자...**와 같은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자료를 다루는 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온 그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술 발달의 흐름에 따른 가용성의 문제가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아날로그 환경의 원자료를 디지털 환경에서 고화질 이미지로 촬영해 아카이브를 만들고(1970-1990), 해당 이미지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1990-2000),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웹에서 서비스하고(2000-2010), 그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베이스 자원을 웹에서 확대함에 따라(2010-2015),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직접 다루려고 하는 시도(2015-현재)로의 점진적 이행은, 기술 발달에 따라 추동 되어 온 가용성에 관한 시각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최근 연구 흐름을 보면 AI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한 연구 사례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도 그러한 경향과 어느 정도는 궤를 함께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기술이 새롭게 상용화되었네. 역사학 자료를 대상으로 이 기술을 한 번 적용해 봐야겠다.”**와 같은 태도는 어찌 보면 과도적 시점에 나올 수 있는 모험적 연구로 그 긍정적 일면을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 그것이 하나의 연구 풍조가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역사학 연구에서 기술의 가용성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 지 여쭙어 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디지털 역사학의 관점에서 연구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선생님께서 발표문 전반부(8-12페이지)에 정리해주신 내용은 그동안 조선시대 자료를 대상으로 여러 기관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의 현황과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특징 그리고 그와 같은 웹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제공 데이터 포함)가 역사학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그동안 구축해 온 여러 조선시대 기록 대상 데이터베이스 및 유관 플랫폼은, 조선시대 역사와 문학을 탐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굳이 부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기능과 가치가 뚜렷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의 ‘기능(function)’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향후 디지털 역사학의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발전되고 또 얼마나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지점을 고민한다면, 단순히 ‘기능 제공’을 넘어서 일종의 새로운 ‘연구 환경’으로 그것들을 다루기 위한 적극적 탐색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기관은 여전히 자신들이 소장한 자료를 저장-관리하는 데 초점을 둔 기능 위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 미래의 학술연구 환경으로서 데이터 플랫폼을 마련하는 데는 소극적입니다. 반대편에서 연구자들은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기능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텐데”라고 하면서도, 시간과 비용 그리고 역량의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그런 결과물을 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관 기관에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주면 좋겠지만, 구축이 안 되어도 내가 어떻게 할 문제는 아니지”라는 소극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펀딩과 프로젝트를 가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관과 실제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문제의식을 갖춘 연구자 개인이 만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면 기관과 연구자의 유기적 논의를 통해 미래적 형식의 역사학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텐데, 현실은 너무나도 요원합니다. ‘Enslaved(<https://enslaved.org/>)’와 같은 첨단 역사학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기관과 연구자가 어떻게 만나야 하고 또 만날 수 있는지에 관해 의견을 여쭙어 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역사학 연구에 있어서 Digital Turn의 본질에 관하여

선생님께서 발표문 마지막 부분(27-28페이지)에서 결과적으로 조선시대 연구의 Digital Turn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동안 만들어진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쌓인 자료가 많다는 점.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가 빠르게 축적되고 있다는 점. ‘많은’ 자료와 연구결과물이 ‘빨리’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량의’ 것들을 ‘신속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계량적 분석의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압도적인 자료와 산재한 지식 가운데 피상적 분석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경계할 수 있는 접근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연구자가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인문학이 조우하는 Digital Turn의 지형에 관해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문학 연구자들이 줄곧 해온 **논문쓰기를 더욱 잘 하기 위해서 디지털 환경이나 데이터처리 기술을 잘 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은 그야말로 아날로그 환경에서의 학술적 관습을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강화하는 것**이지, 디지털 전환(Turn)에 의거한 새로운 학술 논리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예컨대 인문학 연구가 만날 수 있는 또는 만나야 하는 Digital Turn이라고 한다면, 선형(linear)에서 비선형(non-linear) 매체로, 결과(result)에서 과정(process)을 중시하는 문화로, 천재적 개인보다 공동의 집단지성이 갖는 역할과 기능의 강화 정도로 그 변화의 골자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연구자 개인에 의한 일종의 결론 맺기로서 선형적 형식의 논문쓰기가 아니라 **여러 연구자가 협력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지식 활동을 비선형적 형식의 데이터로 편찬-분석-표현하고자 하는 시도야말로, 디지털 환경에서 그 전환을 보여주는 역사학 연구의 새로운 형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연구를 위한 일종의 ‘도구(tool)’로 디지털 기술을 대하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의 연구 ‘환경(environment)’으로서 디지털 세계와 조우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연구가 아직은 현실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의견을 여쭙어 봅니다.

